액션+청춘…색다른 성장 드라마 기대해~

KBS '무림학교' 11일 첫 방영

이현우·이홍빈·신현준 등 출연

세상과 단절돼 있는 듯한 미지의 학교, 그곳에서 입시,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닌 정직과 신의, 생존, 희생을 배워나가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오는 11일 첫 방송 되는 KBS 2TV '무림학교'는 이런 상상에서 출발한다.

학교를 무대로 청춘들의 성장기를 그리는 만큼 영화 '해리포터'나 드라마 '드림하이', '학교', '화산고' 등 이전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이 스친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이소연 KBS PD는 6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무림학교'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다른 드라마가 생각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청춘, 학원 드라마와 다른 독자적인 드라마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드라마가 기존 드라마와 가장 다른 점은 무술. 이 PD는 "청춘의 성장, 화려한 액션이라는 보편적인 감수성을 수준높게 구현해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드라마는 아이돌 스타로, 재벌 아들로 속세에 있던 두 남학생이 이 학교에 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주인공 윤시우(이현우 분)는 톱아이돌 그룹 '뫼비우스'의 리더이자 래퍼. 스캔들에 휘말리고 설상가상 귀에 문제가 생기는 등 위기에 처하면서 운명같은 힘에 이끌려 '무림학교'에 오게 된다.

최근 유승호, 서강준 등과 함께 93년생 배우로 주목받는 이현우는 "윤시우는 기존의 제 이미지와 다르게 까칠하고 건방진 캐릭터"라며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보여지는 따뜻하고 뭉클한 감정에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중학교 때까지 퇴학을 20번이나 당하고 억지로 '무림학교'에 오게된 상해 재벌 아들 왕치앙 역은 아이돌그룹 빅스의 이홍빈이 맡아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한다.

배우인 이현우는 아이돌 역에 도전하고 아이돌인 이홍빈은 연기에 도전하는 셈.

이홍빈은 "현장에서 현우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현우가 무대씬을 찍을 때 도와주려고 갔는데 혼자 너무 잘해서 구경만 하고 머쓱하게 돌아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전반부는 두 사람의 성장기가, 후반부는 악의 세력 '적풍회'로부터 학교를 지켜내려는 액션 활극이 펼쳐진다.

드라마 '라스트', '야경꾼일지' 등에 출연한 배우 서예지가 '알바는 인생'을 외치는 현실적인 캐릭터 심순덕을 맡아 공감대를 넓히고, '풍문으로 들었소'의 정유진이 무림학교 이사장의 딸이자 무림학교의 에이스 황선아 역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표현할 예정이다.

신현준과 신성우가 각각 '무림학교' 이사장 황무송과 '적풍회'의 수장 채윤을 맡아 드라마에 무게를 싣는다.

'무림학교'의 교사 역에는 장광, 정희태, 간미연, 다니엘 린데만, 샘 오취리가 캐스팅됐다.

'글로벌 청춘액션드라마'라는 설명에 부합하듯 해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펍·낸낸(태국)과 중국·영국의 알렉산더, 샤넌 등 외국인 출연자도 다수 출연한다.

무술이 주가 되는 만큼 어느 드라마보다 무술을 많이 연습해야 했던 탓에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출연자들의 무술 실력이 화제가 됐다.

왼쪽부터 신성우·이현우·이홍빈·신현준

거침없다…'내부자들' 감독판 더욱 강렬하게 인기몰이

6일만에 100만명…청불 영화 최대 관객 눈앞

영화 '내부자들' 감독판의 흥행 열기가 심상치 않다. 개봉 6일 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이 5일 하루 동안 관객 8만827명을 동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00만4870명을 기록했다.

'내부자들:디 오리지널'은 기존 극장판 '내부자들'의 감독판으로, 인물들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량이 50분 추가됐다.

지난해 세밑에 개봉한 이래 줄곧 박스오피스 2~3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개봉 3일째에 기존 '늑대소년:확장판'이 수립한 감독판/확장판 역대 최다 관객 수(41만4083명)를 경신한 데 이어 6일째에는 관객 100만명을 넘었다.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의 흥행 돌풍이 일어나자 이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 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개봉 당일에는 스크린 수가 595개였으나 5일 현재 779개로, 관객 700만명 고지를 향해 등정 중인 '히말라야'의 757개보다 많다. 기존 극장판 관객 수 706만6000여명에 감독판 관객까지 더하면 모두 800만명이 넘는 인원이 '내부자들'을 본 셈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로서 드문 일이다.

현재와 같은 기세가 이어지면 곽경택 감독의 '친구'(2001)가 세운 청불 영화 역대 최대 관객 기록(810만명)도 깰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내용도 관객들의 궁금증을 충족할 요소가 많다. 주요 인물들의 과거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달라진 마지막 엔딩장면은 기존 영화의 주제를 흔들만큼 반전 성격이 강하다.

영화 홍보사인 '호호비치' 관계자는 "추가된 엔딩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놓다보니 다시 봐야겠다며 기존 관람객들이 재관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내부자들'의 배급사인 쇼박스 관계자는 "감독판이 영화의 전편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과 분량이 갖추고 있어서 본편을 관람한 관객들의 궁궁증을 풀어줄 만한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신년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이준식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재)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10 닥터 365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5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이준식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45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이준식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은희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 수목미니시리즈 〈달콤살벌 패밀리〉(재)	
2		00 녹화중계 국회인사청문회 〈강은희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20 TV, 책을 보다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싸이걸스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꾸러기 탐구 생활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개밥주는남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30 서민갑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00 명견만리 2016 트렌드 쇼	00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달콤살벌 패밀리〉	00 드라마 스페셜 〈리멤버 아들의 전쟁〉
11	00 아내가 뿔났다(재)	00 KBS 뉴스라인 40 아름다운 청춘, 10인의 도전	10 해피 투게더	10 2016 리우올림픽 축구 평가전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15 자기야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이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
08:10 통통가족
08:15 그림을 그려요
08:20 딩동댕 유치원 2
08:30 두다다쿵
08:40 딩동댕 유치원 눈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초등 2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6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5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윙스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야옹멍멍 귀여워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한자왕국
18:5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사선에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다채로움의 향연, 중국 구이저우〉
21:30 한국기행 〈우리들의 천국 강원〉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7일(음 11월 28일 戊子)

子 **48년생** 가볍게 나타나는 전조를 무시한다면 당황하게 된다. **60년생** 먼저 실행하는 이가 임자임을 알라. **72년생** 근본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할 시점이다. **84년생** 세심하게 살피면서 가야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9, 66

丑 **49년생** 발 벗고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61년생**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73년생** 뜻밖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해 두자. **85년생**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만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64

寅 **50년생**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국면에 이른다. **62년생**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편협해지기 쉽다. **74년생** 아무리 아깝고 잊혀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련을 버려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 **86년생** 중심을 잡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7, 44

卯 **51년생** 공들여 왔던 바가 궁극적인 결실을 보게 되리라. **63년생** 낭설에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 **75년생**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 **87년생** 지금은 비록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26

辰 **40년생**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니 허황된 생각은 버리자. **52년생** 별것 아니니 대범하게 넘겨도 된다. **64년생**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76년생** 내심에서 내키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없으니라. **88년생** 마음의 문을 열자. 행운의 숫자 : 09,18

巳 **41년생** 두고두고 애물이 되리라. **53년생** 어긋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비해야한다. **65년생**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77년생**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89년생** 큰일나게 되어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8, 57

午 **42년생** 이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라. **54년생** 순리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66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78년생** 호평을 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28

未 **43년생** 생기를 띠면서 발전적인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에 이른다. **55년생** 예상했던 바와 틀림없으리라. **67년생**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79년생** 매우 궁금해 왔던 것이 명백히 드러나서 속 시원하겠다. 행운의 숫자 : 29, 59

申 **44년생** 다자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56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도다. **68년생** 평상시에 아는 바대로만 행하면 그만이다. **80년생** 오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잘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51

酉 **45년생** 시종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57년생** 액땜하는 셈 치면 속 편할 것이다. **69년생** 제반사에 과감한 결단과 적절한 실행이 필요하다. **81년생** 냉철한 이성에서 비롯된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들리라. 행운의 숫자 : 76, 02

戌 **46년생** 시종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58년생** 만남과 대화 속에서 깊은 혜안을 가질 것이다. **70년생** 빨리 조치할수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2년생** 종국의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93

亥 **47년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영광이 따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이다. **71년생** 인위적으로 행해서 될 일이 아니로다. **83년생** 자기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25, 8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